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평가

심준영* · 김유일** · 이시영***

*전북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 ***배재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An Evaluation of Parks as Public Services

Shim, Joon-Young* · Kim, Yoo-Il** · Lee, Shi-You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within the public service framework by identifying priority elements. This study surveyed 455 residents from 80 dongs(neighborhoods), of 5 Gu(districts) districts in Daeje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urban parks as a public service, the average survey score, of all 46 questions, was distributed from 2.46 to 3.54(Likert 5 point scale). Interesting findings can be observed in that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gave high scores to Daejeon's natural green environments and geographical traits. That is, Daejeon residents perceived their urban nature spaces as a natural geographical environment rather than a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ir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 by and large, to improve urban parks and urban green space programs. The low scoring items were 'citizen's participation'(mean 2.46), 'acceptance of complaints, comments, and improvement proposals'(mean 2.54), 'citizen's respect', 'inclusive desig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mean 2.55), 'diverse programs and activities in the urban park'(mean 2.55) and 'implementation of revision proposals by citizens'(mean 2.6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opinion sharing is needed to build public services that are satisfactory to users.

To evaluate the park and green spac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services is a useful method with a new point of view. In accordance with this study, the factor of 'supply decision maker' is a statistically meaningful variable of resident satisfaction while earlier studies on the satisfaction studies of physical environment, hardly discovered variables on 'supply decision maker', 'acceptance of resident opinions', and 'information usage'. Responding to or taking positive action according to significant factors, such 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expand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to exert a more positive influence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Key Words: Park Evaluation, Satisfaction Evaluation, Park Satisfaction, Park Usage

Corresponding author: Shi-Young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Paichai University, Daejeon 302-735, Korea, Tel.: +82-42-520-5881, E-mail: sylee@pcu.ac.kr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설정된 주요 항목으로 도시공원녹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5개구 80개동으로부터 인구비례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가 결과, 46개 평가항목은 평균 2.46~3.54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로서 주민에게 제공된 부분보다는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관한 변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 도시공원녹지에 대해 전체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민참여(평균 2.46)', '불편불만건의(평균 2.54)', '주민배려-장애인(평균 2.55)', '공원 녹지 내 다양한 이용프로그램(평균 2.55)', '건의사항의 반영(평균 2.61)'으로 나타나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주민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함은 새로운 시각이면서 필요한 관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공급결정자, 주민의견반영, 정보이용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공급결정자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 인자들에 대한 적극적 반영을 통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증대되어질 것이다.

주제어: 공원평가, 만족도평가, 공원만족도, 공원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고 간주해 왔던 행정문화가 지배적이었다(박천오와 박경호, 1996).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공급하는 정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 결정 및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건섭 등, 2005). 도시주민의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 등 시민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최희운 등, 2004), 지방정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정연택, 1999).

이 중 하나가 공원녹지에 대한 요구이며, 각 지자체장들은 다양한 선거공약과 실천으로 이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로서 공급되는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때라 판단되며,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도시공원녹지를 평가하였다. 도시공원녹지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함은 기존의 공원 만족도 연구에 더하여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의 평가란 소비자주

의와 공공서비스 지향 접근을 개념으로 접근성, 정보이용과 정보습득, 다양성, 주민의 의견반영, 서비스의 질, 도시공원녹지 공급결정자 등의 변수를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공서비스적 관점과 도시공원녹지 만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공공서비스의 의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일명 '공공재'로서 공공기관과 행정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노춘희, 1992; 김동건, 1989)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활동이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박안서, 1993). 전액 또는 대부분 세금에 의해 생산되고 이윤을 내지 않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이며(김동건, 1989),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비경쟁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sion)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한다(박수영,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생산하여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정부는 공급을 맡으면서 민간기업, 비영리 조직, 다른 정부, 이익단체, 공기업 등 다른 생산주체에 의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장우진, 2001).

공공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이 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 consumption),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비배제성, 막대한 외부효과(externalities), 많은 무임 승차자(free rider)의 배출, 사회복지(social welfare)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최창호, 1998). 공공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박안서(1993)는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리적·물리적 요인, 주민의 경험, 객관적 서비스 수준과 상대적 수준에 대한 지각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적 요인은 다시 욕구이론, 기대이론, 가치이론, 불일치 이론, 형평이론이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이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사회경제적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소득과는 별도로 재산의 소유 정도도 포함될 수 있다. 지리적, 물리적 요인은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된다면 지리적, 물리적 특성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에 대한 변수로는 인구, 인구 밀도, 면적, 지역과 거주지 면적비율, 주거유형, 도심과의 거리, 서비스 기관과의 거리, 타 지역과의 관계, 1일 생활반경 등의 변수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개인의 경험, 주민 개개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태도 등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서비스 수준과 상대적 수준에 대한 지각이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수준은 물리적 요소의 영향이 큰 경우와 심리적 요소의 영향이 큰 경우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관관계가 크거나 작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상대적 수준에 대한 지각은 타 지역과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볼 때, 실제 투입된 서비스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를 통해서 주관적인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만족도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되어진다.

따라서 위의 만족도 결정요인들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주민의 객관적 특성으로, 지리적 물리적 요인과 객관적 서비스 수준은 대전광역시외의 구별 도시공원녹지 현황 분석에서, 개인의 경험은 주민의 주관적 특성 중 한 항목으로, 상대적 수준에 대한 지각은 형평성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2.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개인의 정원이 인공화된 도시에서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한 정적, 배타적 폐쇄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반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인공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자연을 접하려는 도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공공공간으로 설정되며, 그 본래적인 공공성 때문에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경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및 조성, 운영

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김대수, 2001).

또 취업, 건강관리, 주택공급, 정신건강, 청소년, 복지 등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의 관점에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여가시간의 활용은 인간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원보전,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휴먼서비스적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휴먼서비스로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은 인간개발, 사회복지,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며, 서비스는 활동, 프로그램, 시설물보다도 인간경험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삶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또한 관계하는 환경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공동의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과, 주민을 위한 계획보다는 주민과 함께 계획할 것을 제시하였다(Gold, 1980). 그럼에도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로 보고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많지 않다.

박명호(1994)는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성격을 공유하는 서비스 등 106개 항목에 대해 품질평가, 요금·가격 평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경험 유무, 만족도, 관심도, 가격만족도가 질문되었다. 공원/녹지는 품질만족지수 124로 51개 공공서비스 중 15번째였으며, 고만족/저관심 서비스에 속하며, 저가격/고품질서비스 영역에 속하고 있다. 이현우(2002)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다섯 곳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시설은 공공의 청사,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의 3가지 시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거환경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안전성(safety), 보건성(health),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 평가를 하였다. 결과, 개인의 질적 수준에 관계되는 교육시설이나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학력, 소득수준, 직업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 시설의 이용만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등 지역의 중심시설 역할을 하는 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체육·여가시설 등 직접적인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쾌적성, 안전성 등 심리적 부분에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김인 등(1989)의 연구결과, 경찰서비스, 지역개발서비스, 보건위생서비스, 문화 및 체육서비스의 순서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컸다. 여기서 공원이 포함된 문화 및 체육서비스의 수요가 가장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문화 및 체육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김인 등, 1989:737-755)."라고 하여 연구 결과보다 더

큰 수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상류층의 수요가 중류층이나 하류층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시공원녹지가 개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이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공서비스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이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기 보다는 쾌적한 도시의 공간구성을 위한 부수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실제 시민들의 이용과는 별도로 계획, 관리되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종규 등, 2002).

그러나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녹지 공간의 양적인 확보와 질적인 향상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목과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공원녹지 관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행정, 재정관리, 조직관리, 이용서비스관리, 이벤트 및 프로그램관리, 주민참여 유도 등의 운영·이용관리를 고려한 전반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이규목과 이준미, 2004). 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공급의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를 평가함은 주민이 원하는 도시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모형

기존의 도시공원녹지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이용행태 연구와 이용후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용행태 연구는 계획가와 이용자 간의 관계이며, 각각 개별 공원에 대한 관계이다. 그러나 실제 주민은 하나의 공원만을 이용하지는 않으며, 환경계획에 앞서 공급의 단계가 있다. 다시 말해, 주민이 느끼는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만족은 하나의 공원을 통해서가 아니며,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공원녹지환경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공원 이용 후 만족도와 함께 주민으로서 거주하는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도시공원녹지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이다. 여기에서 공급 여부가 결정되고,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구별로 공원녹지 공급을 행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풍족한 또는 빈곤한 녹지환경이 부여되고, 개별 공원녹지의 환경계획 이전에 정책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서 결정, 공급되므로 본 연구는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로서 평가·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가설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 접근 방법으로 도시공원녹지 만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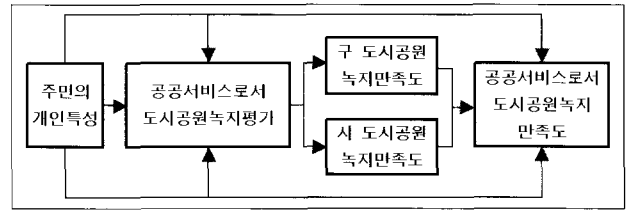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델

였다(그림 1 참조).

공공서비스 접근방법은 도시공원녹지 만족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일 것이며, 주민의 개인특성은 도시공원녹지 평가와 도시공원녹지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 구와 시 수준의 도시공원녹지 만족은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대상지는 대전광역시로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 는 5개 구, 80개 동으로 2006년 1월 연구시점에 도시자연공원 7개소, 근린공원 66개소, 어린이공원 276개소, 묘지공원과 체육공원 각 1개소로서 총 351개소의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약 49,741km²로서 대전광역시 539.64km² 행정구역 면적대비 9.2%의 공원 확보율을 가지고 있다. 2004년 현재 인구 1,450,000명에 대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공원 면적 기준 9.54m²이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2006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 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하 다고 판단되는 것과 주요 설문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45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녹 지 평가, 주민의 주관적/객관적 특성의 총 71개 문항으로 구성

표 1. 대전광역시 공원별 조성현황(단위: 천m²)

공원별	구분		합계		조성		미조성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도시자연공원	7	35,892	(7)	10,049	7	25,843	-	-	()부분조성
근린공원	66	9,956	41	3,033	18	6,424	7	499	-
어린이공원	276	625	217	452	27	68	32	105	-
묘지공원	1	3,227	1	3,227	-	-	-	-	-
체육공원	1	41	-	-	1	41	-	-	-
합계	351	49,741	259	16,761	53	32,376	39	604	-

자료: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2006: 25-26.

되었다. 공공서비스 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만족도 측정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인 등(1989)과 김점순(1985)의 실증적 연구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특성에 따라 도시공원녹지평가가 차이가 날 것이라 가설하고 개인 특성은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이며, 주관적 특성은 지역신문구독,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경력, 불평·불만 제기와 처리, 지방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 정부와 행정에 대한 이해, 서비스 경험, 세금의 효율성, 부가과세납부 의사로 이루어졌다.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생활권의 도시공원녹지 평가라는 측면에서 서구, 대덕구, 유성구 등의 '구 공원녹지만족'과 대전광역시 전체에 대한 '시 공원녹지만족', 그리고 이 두 측면을 통괄하는 의미의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의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17.0(SPSS Inc., 200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카테고리별 요인분석을 하여 평가변수를 재구성하여 경로분석, 일원분산분석과 t-test에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주민평가 분야 연구에서 쓰이는 평가틀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도시공원녹지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접근성', '정보이용과 정보 습득의 용이성', '다양성', '주민의 의견반영', '서비스의 질', '도시공원녹지의 공급결정자'의 6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간의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신뢰도 검증은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방법 중의 하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고, 6개 개념별로 요인분석 시에는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인 변수로 주성분 분석 후 배리맥스(varimax)회전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공공서비스 질은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92~0.843, 도시공원녹지공급결정자는 0.933~0.947로 신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념별로 요인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녹지와 시설,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주민 배려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표 2 참조), 다른 5개 항목은 1개의 요인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접근성', '정보이용', '다양성', '주민의견 반영', '녹지와 시설',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주민배려', '공급결정자'의 8개 변수로 정리하였다.

2.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시공원녹지 평가는 공원녹지접근성 4개

표 2. 공공서비스의 질의 요인분석

	성분		
	녹지와 시설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주민배려
휴게시설	0.752	0.216	0.066
녹지관리	0.706	0.224	0.188
녹지양	0.689	0.257	0.073
편익시설	0.664	0.076	0.161
위생관리	0.664	0.082	0.278
수목관리	0.583	0.232	0.082
유희시설	0.566	0.010	0.363
조경시설	0.550	-0.024	0.486
공원개선	0.528	0.110	0.348
운동시설	0.491	0.188	0.338
시의 자연환경	0.022	0.821	0.216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0.172	0.816	0.142
자연공원의 등산로 정비	0.277	0.650	0.013
환경오염 감소	0.416	0.436	-0.414
주민배려-유모차	0.231	0.183	0.717
주민배려-장애인	0.263	0.143	0.634
고유치	5.803	1.616	1.081
공통분산(%)	36.267	10.102	6.754
누적비율(%)	36.267	46.369	53.123

문항,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이용과 정보습득의 용이성 3개 문항, 공원녹지의 다양성 10개 문항, 공원녹지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3개 문항, 공원녹지 서비스의 질 21개 문항, 공원녹지의 공급결정자 10개 문항, 구와 시 그리고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 녹지만족도에 대해 각각 1문항으로 총 54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중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8개 변수가 제외되어 총 46개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전체 46개 항목은 평균 2.46~3.54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 것을 고려할 때 최고치가 3.5점 수준에 있어 도시공원녹지는 많이 낮게 평가되었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수준의 전체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시의 자연환경 항목'이 평균 3.54로 평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은 평균 3.45, '환경오염 감소'가 평균 4.41, '자연공원의 등산로 정비'가 평균 3.40의 순서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공공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부분보다는 대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민참여로 평균 2.46이었으며, 다음은 불편불만건의가 평균 2.54, 주민배려-장애인이 평균 2.55,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이 평균 2.55, 건의사항의 반영이 평균 2.61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의 생각과 불편불만이 공원녹지 운영에 반영되지 않음과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계층의 주민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3.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

구성개념 평균(표준편차)	변수	평균(표준편차)
접근성 2.95(0.84)	시 공원녹지의 위치	2.94(0.97)
	시 공원녹지까지의 거리	2.98(1.03)
	구 공원녹지의 위치	2.88(1.03)
	구 공원녹지까지의 거리	3.06(1.06)
정보이용 2.80(0.83)	정보이용	2.80(1.00)
	정보습득	2.65(1.00)
	공원 내 정보이용	2.90(1.00)
다양성 2.91(0.79)	구 공원녹지 다양성	2.88(0.96)
	다양한 행사	2.70(0.99)
	다양한 이용프로그램	2.55(1.02)
	달리기를 위한 공원녹지	3.07(1.04)
	자전거 탈만한 공원녹지	2.96(1.06)
	운동할 만한 공원녹지	3.01(1.00)
	휴식할 만한 공원녹지	3.06(1.00)
	친구, 가족과 함께 갈만한 공원녹지	2.96(1.04)
어린이가 놀만한 공원녹지	2.83(1.01)	
주민의견 반영 2.56(0.86)	불편불만건의	2.54(1.02)
	건의사항의 반영	2.61(0.97)
	주민참여	2.46(0.95)
녹지와 시설 2.88(0.60)	편의시설	2.85(0.87)
	조경시설	2.76(0.92)
	휴게시설	2.90(0.88)
	유희시설	2.78(0.87)
	음수전 화장실의 위생관리	2.66(0.90)
	운동시설	2.91(0.89)
	공원개선	2.86(0.93)
	녹지양	2.98(0.90)
	수목관리	2.94(0.89)
	공원녹지관리	2.89(0.85)
시의 자연 환경과 경관 3.48(0.70)	시의 자연환경	3.54(0.88)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3.45(0.87)
	자연공원의 등산로 정비	3.40(0.89)
	환경오염 감소	3.41(1.08)
주민배려 2.63(0.80)	주민배려-유모차	2.70(1.02)
	주민배려-장애인	2.55(0.90)
도시공원 녹지 공급자 2.76(0.81)	시장-주민필요이해	2.81(0.92)
	시공무원-주민필요이해	2.75(0.93)
	구청장-주민필요이해	2.73(0.95)
	구공무원-주민필요이해	2.75(0.96)
	시장-전문지식	2.73(0.92)
	시공무원-전문지식	2.77(0.95)
	구청장-전문지식	2.73(0.90)
	구청공무원-전문지식	2.75(0.91)
공공서비스 공원녹지만족	2.96(0.87)	
대전광역시녹지만족도	2.87(0.89)	
구 녹지만족도	2.82(0.97)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만족도는 평균 2.96, 대전광역시 공원녹지만족도는 평균 2.87, 구 공원녹지만족도는 평균 2.82로 모든 만족도가 낮았다(표 3 참조).

그 외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달리기를 할 만한 공원녹지', '휴식할 만한 공원녹지', '운동할 만한 공원녹지'와 공원녹지의 '접근성'에 관한 항목들이고, 나쁜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위생관리', '다양한 행사', 시와 구의 공무원 등 '공급결정자'에 대한 항목들이다. 이것은 그동안 도시공원녹지의 양적 공급에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물리적이고 양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도시공원녹지의 서비스적 측면과 공급결정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양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으나 절대 평가치를 보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자원 배분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적 측면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함은 물론이고, 물리적·양적 측면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의 54개 평가항목을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8개 변수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8개 변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변수가 평균 3.48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평균 2.95, 다양성이 2.91, 녹지와 시설이 2.88의 순서였다. 주민의견 반영은 평균 2.56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주민배려 2.63, 공급결정자 2.76의 순서로 낮게 평가되었다(표 3 참조).

3.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의 비교

분석 결과, 객관적 특성 변수에 의해서는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준영과 김유일(2005)의 연구 결과,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도 역시 성별, 나이, 소득, 거주지 등에 의해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취향, 경향의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박명호(1994)의 연구에서도 만족도는 높고, 관심도는 낮은 공공서비스에 속했던 결과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변수에서는 '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 변수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에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의 만족이 더 높았다. 정부나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경향의 주민이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 5 참조). '세금의 효율성' 변수는 유의확률 0.000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만족이 높았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 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표 6, 7 참조).

표 4.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 정부에의 의견제시(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유의확률
집단-간	10.29	2	5.15	5.60	0.004
집단-내	470.67	512	0.92	-	-
합계	480.96	514	-	-	-

표 5.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 정부에의 의견제시(Duncan)

정부에의 의견제시	표본수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331	2.74	-
보통	111	2.91	2.91
의견을 제시함	73	-	3.14
유의확률	-	0.190	0.060

표 6.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 세금의 효율성(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유의확률
집단-간	9.82	2	4.91	5.37	0.005
집단-내	435.48	476	0.92	-	-
합계	4,345.30	478	-	-	-

표 7.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도 비교: 세금의 효율성(Duncan)

세금의 효율성	표본수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됨	260	2.70	-
보통	149	-	2.97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70	-	3.01
유의확률	-	1.000	0.740

표 8.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 서비스경험(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유의확률
집단-간	10.93	2	5.46	5.91	0.000
집단-내	472.61	511	0.92	-	-
합계	483.53	513	-	-	-

표 9. 개인별 도시공원녹지만족도 비교: 서비스경험(Duncan)

서비스경험	표본수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이용 안함	27	2.44	-
앞으로 이용	260	2.73	2.73
꾸준한 이용	227	-	2.97
유의확률	-	0.090	0.150

‘서비스 경험’ 변수는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는데, 꾸준히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또 앞으로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주민개인의 정치적 태도, 공공서비스 경험, 공공서비스에의 기대, 지방정부의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 등 주관적 특성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조은경, 1998)와 일치되는 결과이다(표 8, 9 참조).

4. 연구 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경로 분석을 하였다. 경로분석은 4단계(개인특성 → 도시공원녹지 평가 →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 →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가설에서 설정한 경로에 대해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도시공원녹지 평가 변수와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평가변수와 개인 특성변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가 각각 영향력 0.39와 0.33으로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또 다양성의 영향력이 0.32로 강한 긍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시민단체 가입의 영향력 0.17, 불평의 유효성의 영향력 0.14, 주부가 영향력 0.10, 20대가 영향력 0.16으로 긍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공원관련 강의 수강이 영향력 -0.14, 소득 200만원 이하의 영향력이 -0.12, 소득 200만원대의 영향력이 -0.13으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다양성과 공급 결정자가 영향력 0.37과 0.23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부에의 의견제시의 영향력이 0.13, 세금의 효율성의 영향력이 0.13으로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이용이 영향력 -0.11, 소득 200만원대가 영향력 -0.13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다양성의 영향력이 0.22, 공급결정자의 영향력이 0.22, 시민단체가입의 영향력이 0.01, 세금의 효율성의 영향력이 0.10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소득 200만원 이하가 영향력 -0.13과 소득 200만원대가 영향력 -0.16으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 변수로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변수는 시민단체 가입의 영향력은 0.11이었고 세금의 효율성의 영향력은 0.18, 서비스 경험의 영향력은 0.11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이용’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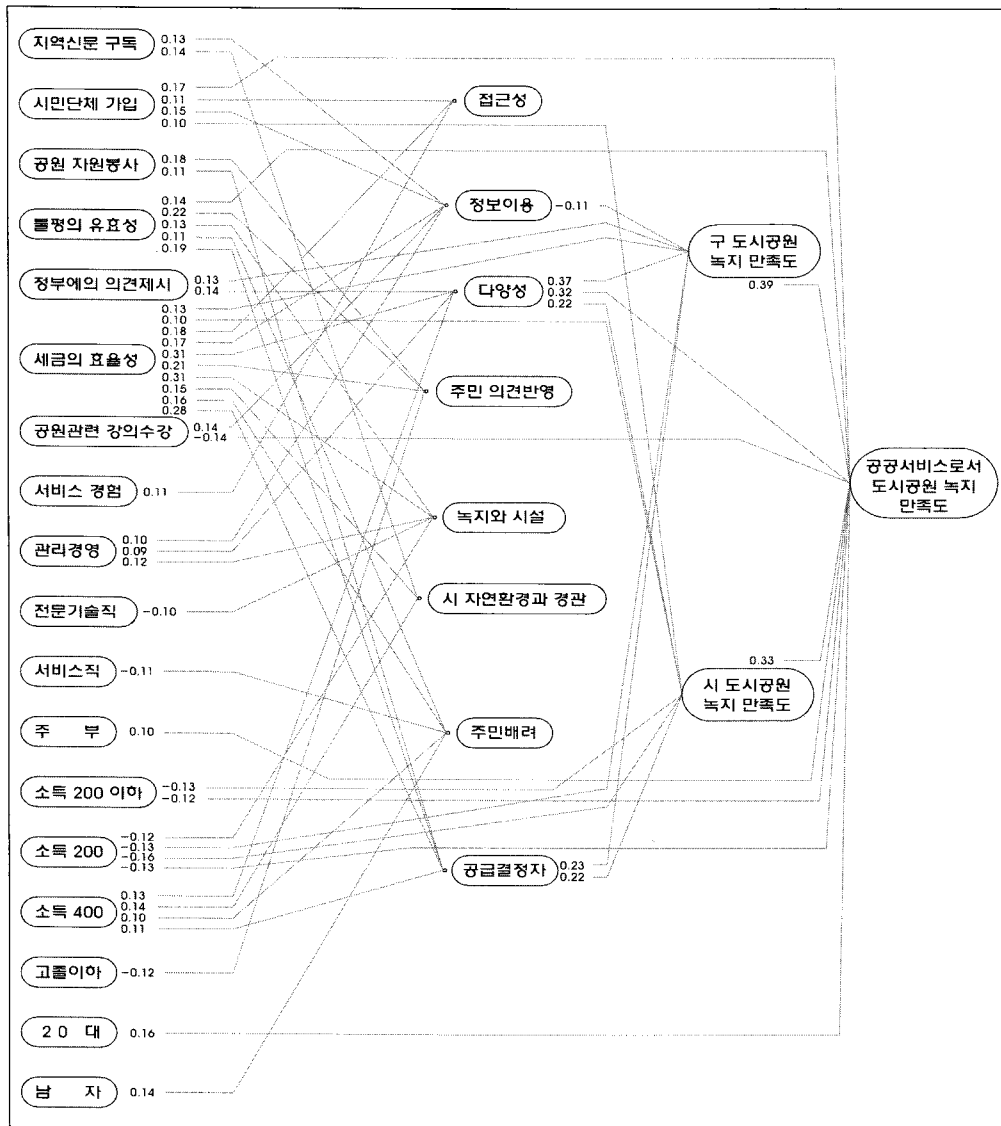


그림 2. 경로 분석도

주는 개인 특성변수는 지역신문구독, 시민단체 가입, 세금의 효율성, 공원관련강의 수강, 관리경영인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부에의 의견제시, 세금의 효율성, 관리경영인, 소득 400만원대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의 효율성 변수가 영향력 0.31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민의견 반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원자원봉사, 불평의 유효성, 세금의 효율성이 긍정적 영향을, 학력이 고졸 이하가 영향력 -0.12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녹지와 시설'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불평의 유효성, 세금의 효율성, 관리경영인이 긍정적 영향을, 전문기술직, 소득이 200만원대가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시 자연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역신문구독, 세금의 효율성, 소득변수로 소득 400만원대가 모두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주민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평의 유효성, 세금의 효

율성, 소득 400만원 대, 남자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서비스적인 응답자의 영향력은 -0.11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공급결정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원자원봉사, 불평의 유효성, 세금의 효율성, 소득 400만원대로 모두 긍정적 관계였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시 공원녹지만족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평가변수 중 다양성이 강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구 도시공원 녹지만족도와 시 도시공원녹지만족도를 통한 간접 영향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 개인의 주관적 특성과 객관적 특성 변수와도 관계가 있었다.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평가 변수 중 정보이용, 다양성, 공급결정자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는 다양성과 공급자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어

평가 변수 중 다양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세금의 효율성 변수가 구 도시공원 녹지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과 정보이용, 다양성, 공급결정자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에는 다양성, 공급자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접근성, 주민의견 반영, 녹지와 시설, 시 자연환경과 경관, 주민배려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개인 특성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 변수는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구 도시공원녹지 만족도, 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소득 200만원대의 응답자는 모두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와 소득 200만원대 응답자는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와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소득 400만원대 응답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 주민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은 도시공원녹지 만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객관적 특성보다는 주관적 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이며 지방 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가운데, 도시 내 대표적인 자연환경이며 주된 여가공간인 도시공원녹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다. 도시공원녹지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함은 기존의 공원 만족도 연구에 더하여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결과, 46개 평가항목은 평균 2.46~3.54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로서 주민에게 제공된 부분보다는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관한 변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 도시공원녹지에 대해 전체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평균 2.46의 주민참여, 평균 2.54의 불편불만견, 평균 2.55의 주민배려-장애인과 공원녹지 내 다양한 이용프로그램, 평균 2.61의 건의사항 반영으로 나타나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주민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평가의 편이를 볼 수 있었으며, 주관적 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함은 새로운 시각이면서 필요한 관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공급결정자, 주민의견 반영, 정보이용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공급결정자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 주민과 공무원의 차

이를 알아보는데도 유용한 방법으로써 고객만족 행정혁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지금,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 정기적으로 시행함은 주민의 공원녹지 만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과제로서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도시공원, 녹지환경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서비스량으로 공원, 녹지량 이외에 공원녹지 관련 조직, 공무원 수, 예산 등도 공원녹지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객관적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통한 연구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김대수(2001) 공원여가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공원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혜천대학 논문집 27. pp. 505-519.
2. 김동건(1989) 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3. 김인, 김학노, 김성국(1989) 사회계층에 따른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관료제적 의사결정 규칙: 사회적 균형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23(2): 737-755.
4. 김종규, 고원용, 이원식, 김홍규(2002) 시설기능에 따른 도시공원분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797-806.
5. 노춘희(1992) 도시행정총론. 서울: 형설출판사.
6. 대전광역시(2006) 대전공원화 2012계획, 공원. 녹지과, 25-26.
7. 박명호(1994) 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조사. 한국개발연구소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8. 박수영(1996)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9. 박안서(1993) 공공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양산전문대학논문집, 2: 205-218.
10. 박천오, 박경호(1996) 한국 관료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1. 송건섭, 이근수, 윤종갑(2005) 기초자치단체의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과 적용: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와 측정. 서울: 도서출판 대명.
12. 이규복, 이준미(2004) 도시공원녹지관리의 자발적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2), 271-284.
13. 이현우(2002)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장우진(2001) 공공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정연택(1999)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연구. 3사교 논문집 49. pp. 311-349.
16. 조은경(1998)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만족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최창호(1998)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삼영사.
18. 최희윤, 조영태, 양동양(2004) 도시공공시설의 지역간 입지불균형에 따른 공간분석. 한국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6), 207-214.
19. Gold(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sig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원 고 접 수 일: 2009년 10월 26일
 심 사 일: 2009년 12월 2일
 계 재 확 정 일: 2009년 12월 29일
 4인 의 명 심 사 필